장백산천지
제 374 호 2020 년 3 월 18 일 수요일

# 스웨덴 파룬궁 수련생이 민토르짓 광장에서 진상을 알리다

「밍후이왕」 2020 년 2 월 29 일 토요일 오전 초봄의 큰 눈이 스톡홀름에 내렸지만 점심에 두터운 눈은 모두 녹았다. 큰 눈 내린 스톡홀름의 햇살은 밝고 공기는 특별히 시원했으며 스웨덴에서 있어본 적 없는 아름답고 사람을 매혹시키는 풍경을 연출했다. 정오에 스웨덴의 파룬궁 수련생들은 시 중심 의회(Riksdag) 건물 옆의 민토르짓(Mynttorget) 광장에 모였다. '파룬궁 박해를 멈추자(停止迫害法輪功)'란 눈에 띄는 현수막을 세우고 진상 전시판을 설치하고 진상알리기 활동을 시작했다. 날씨는 약간 싸늘했지만 광장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다.

전시판을 설치하자 보안 제복을 입은 스웨덴 중년 남성이 다가와 수련생에게 인사를 건넸다.수련생이 보안요원에게 행사 허가증을 보여주려고 하자 그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니예요. 아니예요. 저는 당신들을 알아요." 그는 또 수련생들에게 그가 일찍이 반박해 서명지에 서명했다고 알려줬다. 떠나기 전에 보안요원은 수련생한테서 갓 배운 중문으로 말했다. "파룬따파는 좋습니다!(法輪大法好!)"

에리나(Elina)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행사 장소를 지나가다가 다가와서 서명했다. 그리고 수련생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들의 일(파룬궁 진상)을 모두 알고 있어요. 나는 진선인(眞善忍) 미술전에서 알게 됐고, 이 미술전을 스톡홀름, 욘코핑, 마지막으로 베를린, 총 세 번 보았어요. 당신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한 분은 웁살라에 거주하고 이란에서 왔는데 옷을 우아하게 입은 여성이었고, 그녀의 남자친구는 스웨덴인이었다. 진상 전시판에 서서 자세히 보고는

진상 전시판은 오가는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관람하고 열독하게 했다

현지 이란계 파룬궁 수련생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련생은 그들에게 파룬궁을 소개해줬고 중국에서 아직도 파룬궁 수련생 장기를 적출하여 중공이 폭리를 취하는 죄악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줬다. 중공의 악행에 대해 그들은 매우 격분했다. 그러나 파룬따파의 상사로움과 아름다움은 그들을 감동시켰다. 두 사람은 수련생들을 따라 연공 동작을 배웠다. 이 여성은 수련생에게, 그녀가 현재 웁살라의 의과대학에서 사람 대뇌에 관한 연구 과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곳에 연공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척 기뻐하며 하루빨리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자신의 연락 방식을 남겼다.

터키에서 온 바하(Bahar)와 그의 아내 무라트(Murat)는 스웨덴에 이민 온 지 이미 반년이 넘었다. 부부는 수련생이 이야기하는 중공의 파룬궁 수련생 생체 장기 적출로 폭리를 얻은 악행을 집중해서 들었다. 바하는 격분해서 말했다. "너무 사악해요! 그것들은(중공) 바로 마귀예요!" 진상을 들은 후 부부는 서명지에 서명해 파룬궁 수련생의 반박해를 지지했다. 아내 무라트는 스톡홀름 연공장 연락인의 전화번호를 자세히 기록했고 남편과 함께 파룬궁을 배우겠다고 했다.

그날 행사 시간은 길지 않은 짧은 두 시간이었지만 파룬궁 진상을 알고 간 사람들은 오히려 매우 많았다. 현지 수련생들은 세인을 향해 중공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발걸음을 더 다그치겠다고 했다. 더 많은 세인들이 중공 사교의 본질을 똑똑히 알도록 돕고 전 세계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함께 중공의 폭행을 제지하고 하루 빨리 파룬궁에 대한 20 년 넘는 잔혹한 박해를 종식 할 것을 호소했다.

## 세 식구가 발열 한 후...

[밍후이왕] 기업이 복공(复工)한 후 나의 며느리는 자아방비 의식이 강해 출근 할 때 마스크를 끼고, 자주 손을 씻었으며, 점심밥을 스스로 준비해 먹고, 퇴근후 아주 내심하게 입었던 옷을 아래 위로 전부 소독하고, 머리를 감고, 세수를 했다. 하지만 2 월 15 일(토요일), 며느리는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체온은 37.8 로 오르기 시작하고, 전신이 아파나며 힘이 빠지는 등 불편을 느꼈다...

이튿날 오전, 나의 아들과 4 살 되는 손자도 같은 증상을 보였다. 아들은 기침이 나고, 속이 메슥 거려하고, 손자도 식욕이 없는데다 힘도 빠져서 쏘파에 업드려 힘들어 했다. 그들은 내가 걱정할까 두려워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점심이후 세식구는 낮잠을 자더니 모두 이불 안에서 일어 나지 않았다. 나는 아들이 놀라는 표정을 보고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무슨일인지를 물었다. 그제서야 며느리는 나에게 진실을 말했다. 나는 두려워 하지 말고 누워만 있지도 말고, 모두 일어나 우리집 5 명이 무두 마음으로부터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를 념하자고 말했다. 별일 없으니 두려워 하지 말라고 말했다.

나는 어린 손자더러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쩐싼런하오(眞善忍好)'를 읽게 하고, 그에게 어린제자들의 노래와 영상 등을 보여 줬다. 손자는 아주 좋아하며 부단히 따라 함께 노래를 불렀다. "어린 따파(大法) 제자의 마음은 련꽃을 따라 웃고, 허스 ( 合十 ) 하며 진심으로 '사부님, 안녕하십니까!'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나는 며느리에게 <전법륜(转法轮)>(파룬궁수련을 지도하는 주요저서)를 공손히 넘겨줬다. 며느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제 1 강의 제 1 절"진정하게 고층차(高層次)로 사람을 이끌다" 를 보았다.

저녁이 되자 어린 손자는 완전히 완쾌돼 뛰어 다니면서 놀았다. 하루건너 며느리는 출근했고, 아들도 점차적으로 완쾌돼 파룬궁 진상 호신부를 갇고 근심걱정 없이 출근했다.

이렇게 세식구는 위험에서 벗어났다.

## 악인명단을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5개국 정부에 제출하고 그 악인의 비자발급을 거절하고 재산동결을 요구하다

[밍후이왕] 최근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5 개국의 파룬궁(法輪功)수련생은 새로 정리한 파룬궁을 박해한 악인명단을 본국 정부에 또 제출하고 그 악인의 비자발급을 거절하고 재산동결을 요구했다.

작년 11 월 파룬궁수련생이 악인명단을 동시에 5 개국 정부에 제출한 후 국제사회에서 인권박해자를 제재하는 면에서 또 진전이 있었다.

국제인권의 날 전날인 2019 년 12 월 9 일 유럽 외무부 장관회의에서 인권 침해자를 제재하는 입법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전세계의 인권 침해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계기가 됐다. 유럽연합에서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 문책법'에 해당하는 이 법안의 통과는 전 세계 인권수호의 상징적인 계기가 됐다.

올해 1 월, 2 명의 미국 정부 요원이 워싱턴에서 인권단체, 종교단체대표와 회동하여 인권박해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에 관한 해당 법률조항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대표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정부 관계자는 박해받고 있는 각 단체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그들에게 악인의 명단과 악행의 기록을 제공해 줄 것을 희망했다.

우리는 밍후이왕에 보도된 자료에서 악인의 명단을 발췌하고, 그 악인들의 악행 내용을 정리하고 번역한 후, 그 명단을 일부 자유민주국가와 정부에 제공함과 동시에 그 악인들을 제재해 줄 것을 요구 하기로 했다.

박해자들은 자신이 악인명단에 포함돼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밍후이왕의 악인명단을 확인하면 된다. 악인명단에 오른 자는 무슨 요행을 바라지 말라. 악행을 자행한 자는 조만간 자유민주국가와 정부의 제재명단에 나타 날 것이다.

악행에 연류됐거나 연류 될 위치에 있는 중국인들은 교훈으로 삼기 바란다. 중국공산당의 박해정책에 협조하거나 집행에 가담하는 잘못을 저질러 자신과 가족이 서방국가에 정착, 교육, 사업, 여행 등의 길을 차단 당하지 말라. 악행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순정한 마음으로 악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미 악행을 자행한 자는 즉시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길로 돌아와 그간의 잘못을 만회하여 속죄하기 바란다. ◇

## 무한 폐렴 역병정황:

# 호북성 사양 범가대 감옥에서

## 파룬궁수련생 석방을 연기하다

[밍후이왕] 호북성 사양 범가대(沙洋范家台) 감옥은 최근에 만기가 된 파룬궁수련생 정유금(程幼金)의 석방을 거부했다. 이 감옥은 호북성 무한시 신주 지구의 정치법률위원회에 서한을 보냈고, 무한 폐렴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기간 감옥과 관련 부서에서는 '필접필송조치(必接必送措施)'를 구실로 계속해서 정유금을 수감했다.

'필접필송조치'를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만기된 파룬궁수련생을 감금하는 것은 불법으로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위법행위이다.

대체 '필접필송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호북성 사양 범가대 감옥에서는 명문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유금은 무한시 신주구 제 5 고급 중학교 교사였다. 2015 년 8 월 27 일, 그는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무한시 ,구의 2 급 국가보안경찰에 의해 납치돼 불법으로 재산을 갈취당하고 컴퓨터 같은 개인 물품을 강탈당했다.

정유금은 이날 밤부터 신주구 구치소에 15 일 동안 수감됐다가 불법 기소됐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유력하게 무죄 변호를 했지만 판사 주걸(周杰) 은 울화통이 터졌다.

무한시 신주구 '610' 사무실 주임 왕준열(汪俊烈)은 주임으로 부임한 후, 2016 년 5 월 26 일에 불법 재판으로 정유금에게 4 년 6 개월 형을 판결했다.

**황여사는 병에 걸렸으나 북경에 들어갔다**

이와는 선명한 대비되는 것은 황여사라고 불리는 무한 주민이 2020 년 2 월 18 일에 무한 여자감옥에서 만기 출소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황씨는 원래 호북성 선은현 수리수산국 재무부 계장겸 출납이였다. 탐오죄로 10 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후에 감형(減刑)을 받고, 최근에 형기를 마치고 석방됐다.

황 씨는 2 월 18 일부터 5 일 동안 간헐적으로 열이 나고 목이 불편했다. 당시에 그녀는 폐쇄된 상태의 무한에 거주하고 있었다. 2 월 22 일 새벽 2 시, 황 씨는 북경에 사는 가족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무한을 떠나 북경에 도착해서 체온 검사를 한 후 가족이 있는 북경 둥청구의 한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녀는 2 월 23 일 저녁 7 시에 열이 나서 발열문진에서 검사를 받은후 무한 폐렴 확진을 받고, 시급 거점병원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았다.

▲해외 파룬궁수련생들은 대행진에서 세인에게 "파룬궁 박해를 멈추자! " 라는 표어를 전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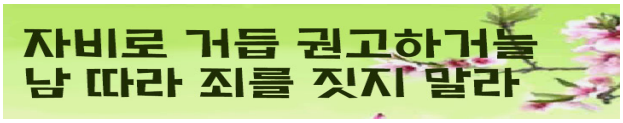
**길림성 연변주 팔가자 림업공안국 부국장 동립강(董立强)은 악보받아 사망하다**

동립강, 남, 57 세, 연변주 팔가자 림업공안국 부국장이며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했다. 2019 년 10 월 16 일, 악보받아 장암으로 사망했다.

1999 년 7 월 20 일, 강택민집단이 파룬궁에 대해 탄압을 실시한후 동립강은 적극적으로 뒤따라 몸을 아끼지 않고, 파룬궁수련생 박해에 참여 했다. 파룬궁수련생을 미행, 감시, 소란, 집수색, 세뇌반에 납치해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수련생을 핍박해 신앙을 포기하고, 도덕의 승화를 포기하게 했다.

2014 년 11 월,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해 이른바 "학습반"에 참가 시킨다고는 사실은 팔가자 림업국 초대소 107 방에 가두었다. 실체는 강제세뇌반인데 고압 세뇌 방법으로 파룬궁수련생을 핍박해 신앙을 포기하게하고, 따파(大法)사부님을 모독하게 하고, 파룬따파(法轮大法)를 왜곡하게 했다.

선악에 보응이 있다 는 것은 천리(天理)이다. 우리는 누구든 악행으로 악보받는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직도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사람은 이것을 교훈으로 삼고 진정 자신과 가족을 위해 좋은 미래를 선택하기 바란다. 중공 사당조직에서 탈출하고 마음속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眞善忍好)를 기억하여 명을 보전하고, 평안을 보전 할 것을 희망한다. ◇



# 대법이 좋다고 진심으로 믿으니 평안과 복이 오다

**휠체어를 타던 암 환자가 신기하게 건강을 회복**

어느 날, 고객 치위(가명)는 암에 걸린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우리 매장 앞까지 왔다. 나는 계단을 내려가 치위를 도와 그의 아내를 부축해 매장 안 의자에 앉혔다.

나는 그들 둘에게 대법 진상을 알렸고 그들을 사당(邪黨: 공산당) 조직에서 탈퇴시켜 줬고 호신부를 줬다.

치위는 아내가 유방암에 걸려 화학치료를 한다고 했다. 그들은 진지하게 진상을 듣고 진상을 알았다. 나는 자신 있게 그들에게 "자주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우면 재난을 피할 수 있고 환자의 몸도 기적처럼 나아져요."라고 말했다.

치위의 아내는 기뻐하면서도 의문을 품고 물었다. "당신이 말한 것은 너무 신기해요."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알려드릴게요. 파룬궁은 신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니 대법은 아무것도 필요 없이 단지 당신이 악을 멀리하고 진심으로 선해지려는 마음가짐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眞善忍好)'를 외우면 복을 받아요. 한번 해 보세요." 그들은 들은후 기뻐했다.

마지막에 치위를 도와 그의 아내를 부축해 계단을 내려주고 휠체어에 앉힌 후에야 매장으로 돌아왔다.

한 달 후, 나는 고개를 숙이고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불렀다. 고개를 들어 보니 치위 부부는 이미 매장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는 신속히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치위의 아내는 내가 전에 준 호신부를 꺼내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전번에 당신과 헤어진 후 당신 말대로 매일 '파룬따파하오'를 외웠더니 몸이 하루하루 좋아졌어요. 저는 죽지 않아요. 파룬궁은 너무 신기해요!"

나는 말했다. "저에게 감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르고 사악한 것을 구별하고 진상을 받아들인 것도 당신들의 복이예요. 파룬따파와 대법 사부님께 감사드리세요! 당신들이 진상을 알고 복을 받은 일을 친척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더 많은 사람이 사당 거짓말에 속지 않고 각성하게 돼요. 그들에게 '삼퇴'를 해야 무사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들은 말했다. "사람은 양심을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구해준 대법의 은혜에 부끄러울 것이니 꼭 친척에게 알리겠어요."

그들이 나갈 때 나는 지난번처럼 치위의 아내를 부축해주려 하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부축하지 않아도 돼요. 저 이젠 걸을 수 있어요!"나도 그녀의 몸이 이토록 빨리 회복 될 줄은 몰랐다. 진심으로 그녀를 위해 기뻐하던 중 나는 문 밖에 휠체어가 보이지 않아 물었다. "저번에 타고 온 휠체어는요?" 그녀는 말했다. "저는 이젠 휠체어가 필요 없어요. 저는 집에서 걸어왔어요."

**수련생의 말을 들으니 괴사한 넓적다리뼈가 정상으로 회복**

한 수련생의 고등학교 동창이 진(鎭)에서 교사로 일했다.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양쪽 넓적다리뼈가 괴사했다. 인공 넓적다리뼈 수술비에 8 만원이 필요했다. 그는 돈이 없어 수술하지 못해 무작정 수술을 미뤘다. 1991 년 수련생이 대학을 졸업할 때 이미 그 동창생은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 수술하지 못했다.

2006 년, 수련생이 동창을 보러 가서 사당의 공청단을 탈퇴하게 하고 그에게 '9 평 공산당'과 '당신이 무사하기를 바란다' 등 진상 자료를 줬다. 나중에 또 그에게 <전법륜(转法轮)>을 줬다. 동창은 진지하게 거듭<전법륜(转法轮)>을 보았고 마지막에는 거의 외울 수 있을 정도였다. 대법 책을 읽으면서 동창의 다리는 갈수록 좋아졌다. 원래 그는 설 수 있었지만 비틀거리며 힘들게 걸었다. 오랫동안 앉아있지 못하고 허리도 굽히지 못했다. 진상을 알고 단원을 탈퇴하고 특히<전법륜(转法轮)>을 읽고 행동이 자유로워지고 얼마 후 스스로 버스를 타고 성(城) 소재지에 가서 2 년간 중의학을 배웠다.

그는 진정으로 대법 수련으로 들어오지 못했지만 자주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외웠기에 약을 쓰지 않고도 건강을 되찾았고 심지어 더욱 건강해 졌다.